

화훼도감



정숙_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주로 소형화분에 재배되어 판매되며, 관엽식물과는 달리 꽃이 피어 관사가치를 만드는 화훼작물로서, 시클라멘, 포인세티아, 칼랑코에, 임파첸스, 제라늄 등이 대표적인 분화류이다.

역병



모든 분화류에서 발생하며 특히 칼랑코에와 포인세티아에서 피해가 많은 편이다. 줄기의 지체부가 검은색~흑갈색으로 변하고 포기전체가 급격히 시들어 말라죽는다. 식물체를 뽑으면 지체 부위가 쉽게 끊어진다. 병든 식물에 형성된 병원균은 토양중에서 오래 생존하여 전염원으로 된다. 역병균은 물에 의해 전염되는 대표적인 수생성 곰팡이병으로 저면관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분화류 시설재배에서 피해가 큰 편이라 주의가 요망된다. 역병에 걸린 식물체는 즉시 제거하고 역병전문약제를 선택하여 관주처리 한다.

시들음병



시클라멘과 같은 괴근을 가진 분화류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 병든 포기는 생육이 불량해지고 시들어 죽게 되며 썩은 괴근을 잘라보면 유관속이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다. 한쪽만 부분적으로 시드는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후사리움이란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긴 하지만 작은뿌리 파리유충에 의해 옮기기 때문에 살균살충에 따른 동시방제가 필요하다.

흰가루병



임파첸스와 칼라코에에서 주로 발생하는 흰가루병은 잎에 흰색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피해를 나타내며, 심하게 감염된 잎은 말라 죽는다. 시설재배에서는 여름 고온기를 제외하고 거의 연중 발생하나, 여름철에도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발병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물체가 습해지지 않도록 하며 특히 야간의 다습을 피하고 낮에도 환기팬을 이용하여 다습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등 시설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흰가루병 방제약제는 약제내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단일약제의 연용을 피하고 교호로 살포한다.

잿빛곰팡이병



주로 다습한 조건에서 출하전후 꽃잎에 발생한다. 흰색의 꽃에서는 색깔이 변색되며, 아주 작고 하얀색 또는 옅은 갈색의 점무늬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잎 또는 꽃잎의 가장자리 부터 무르고 회색의 곰팡이가 많이 형성된다. 심하게 발생하면 식물체 전체가 잿빛곰팡이로 덮이면서 썩기도 한다. 환기가 나쁜 비닐 하우스 내에서 밀식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시설재배 때는 환기를 잘하고 난방방법을 개선하여 실내습도를 내리는 것이 병발생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출하전의 식물체에는 약흔이 남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면지응애



주로 생장점 부근의 눈과 전개 직후의 잎 그리고 꽃과 과실을 주로 가해한다. 심하게 피해받은 잎은 주로 가장자리를 따라 뒤로 말리면서 뺏뺏해지는데 농업인들은 흔히 프라스틱병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피해증상은 바이러스병이나 약해에 의한 피해 증상과 혼동하기 쉬운데 표면이 갈색의 코르크표면처럼 생기는 특징을 가진다. 차면지응애는 미소해충으로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파첸스, 시클라멘, 칼라코에 등을 재배할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작은뿌리파리 유충



유충의 몸길이는 4mm 정도로 작고 하얀색의 벌레로 머리는 검은색을 띄며 몸체가 투명하여 소화기관이 세로로 짙은 갈색을 띤다. 상토 재배하는 분화류에서 큰 피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뜻하고 다습한 재배조건으로 인해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뿌리의 생육이 저하될 경우 근권부로 침입하여 2차적인 피해를 준다. 또한 시들음병 등을 전염시키는 매개충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노란색 끈끈이트랩을 이용하여 작은뿌리파리의 성충을 방제할 수 있다. ☹